언어를 넘어 마음을 잇다

영화 <더 커버넌트> 속 통역사의 노동환경

글 편집실

영화 <더 커버넌트>는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창인 아프가니스탄의 생생한 현장을 그리고 있다. 미 육군 소속 상사인 존 킨리(제이크 질렌할)는 탈레반의 사제 폭탄 제조 공장을 찾으라는 임무를 맡게 된다. 위험한 작전을 앞둔 존은 탈레반을 잘 아는 현지 통역사를 찾아 나서고, 그 자리에 아프가니스탄 현지 통역사인 아메드(다 살림)가 자원하며 둘의 만남이 시작된다. 아메드는 탈레반과의 대치 상황에서도 빠른 상황 판단 능력으로 정보를 얻어내는 등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한다. 영화는 아메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통역사의 삶을 조명한다. 국제회의나 비즈니스 협상 등에서 통역사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그 역할 또한 광범위하다. 비록 통역사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가려져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살아 숨 쉬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징검다리를 놓고 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감정노동자

통역사는 말을 단순히 직역하는 존재가 아니다. 연사의 언어적, 문화적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 듣는 이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한다. 화자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투와 발언 속도는 물론 표정과 감정까지 전하며, 이를 위해 화자의 성향과 성격까지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통역은 현장에서 대화의 맥락을 빠르게 이해해야 하기에 순발력이 필요하다.

말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쏟다 보니 높은 피로도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통역사의 통역 방식은 크게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시통역은 연사의 말을 실시간으로 통역해야 하므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동시통역은 두 명이 교대로 진행한다. 주로 시간 단축을 위해 국제회의나 학술대회 등 중대한 사항을 다루는 자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기에 동시통역사는 상황 변화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통역사는 주로 한 평도 되지 않는 비좁은 부스 안에서 이어폰을 통해 연사의 목소리를 듣는다. 잡음이 섞이거나 단어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 스트레스로 이어져 만성 두통에 시달리거나, 청각의 피로를 느끼곤 한다. 더군다나 행사 중간에 자료가 추가되면 틈틈이 새로운 내용을 파악하고 공부해야 한다. 아무리 경력이 화려한 통역사일지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다. 늘 다른 분야의 주제를 다루다 보니 배경지식 없이는 정확한 정보와 의견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행사와 관련된 회의자료 검토, 용어 공부가 필요하다.

미디어에는 유창한 외국어로 대화를 이끄는 통역사의 모습만이 강조되어 보이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통역사가 환기도 되지 않는 부스에서 끼니도 거른 채 일하며, 비정규직 채용 형태의 고용으로 인한 불안 등 노동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통역사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통역사의 자리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AI는 사용자의 언어를 감지하는 것은 물론, 자동번역 기술로 동시통역을 지원한다. 점점 정교해지는 기술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AI 통역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러나 AI를 통한 통역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통역은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감정, 상황 등 맥락을 읽고 전달해야 하는 일이기에 민감한 문제가 오고 가는 자리 등에서 AI가 사람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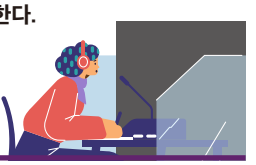
해외에는 국제번역가연맹(FIT), 국제통역사협회(AIIC) 등 통역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존재한다. 반면 국내 통역사의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통역사의 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기준이 없고, 대부분 통역사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기에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통역사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존재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통역사의 목소리가 더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통·번역사 윤리규정

1. 직업적인 객관성, 공평성, 타당성, 비밀을 유지한다.

2. 지속적인 직업적 능력을 개발하여 우수한 능력을 겸비하도록 한다.

3.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일은 거절한다.

4. 일의 조건, 고객과의 관계, 역할 분담 등을 잘 이해시키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분쟁해결절차를 준수한다.